

금강대학교 재학생 여러분

금강대학교 총장 정용덕입니다. 전대미문의 ‘코비드-19’에 더하여 기록적인 긴 장마와 수재로 인해 모두들 심신이 지쳐 있는 요즈음입니다. 그런 와중에도 여러분 모두 가족과 더불어 여름방학을 건강하게 그리고 보람 있게 보내고 있으시기 바랍니다.

방학 중에도 할 일이 무척 많습니다. 외국어 보강도 하고, (이번에는 코비드-19로 어렵게 되었지만) 국내외 배낭여행도 해보고, 각종 자격시험 준비를 위해 학원도 다녀보고, 하고 싶었던 종목의 운동도 배워보고, 가족과 시간을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등 이루 열거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. 그러나 필수적으로 해야 할 일 가운데에는 독서도 포함됩니다. 여러분의 마음을 살찌게 하는 교양 도서나 전공에도 도움이 되는 전문 서적을 몇 권 선택하여 방학 중에 읽는 것입니다. 제 자신도 여름방학에 마음먹고 명작 소설 몇 권을 선정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 냈던 기억이 납니다.

이와 같은 인식에서, 우리학교는 이번 여름에 교수님들께 전공별로 읽을 만한 도서를 추천받았습니다. 그렇게 하여 작성한 추천도서 목록, 그리고 그 중에 한권을 여러분에게 첨부하여 보냅니다. 학교 재정상 좀 더 많은 책을 보내드리지 못함을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. 개학 한 후에 학우들끼리 서로 바꿔 읽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

이번 주가 지나면 긴 장마도 끝나지 않을 가 기대합니다. 그리고 더위도 한풀 꺾일 것으로 짐작합니다. 하루빨리 팬데믹 상황이 끝나고 여러분을 교정에서 만나 이야기 나눌 수 있기를 고대합니다.

재학생 여러분! 이제 얼마 안 남은 여름 방학에도 부디 건강하게 지내면서 가을학기를 준비하도록 합시다.

감사하며,

광복 75주년을 하루 앞두고,

금강대학교 총장 정용덕 보냄